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황채운	소속(학부/과)	환경공학과
파견 학기	2022/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에나응용과학대학교(EAH)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어학 능력 향상과 현지에서 살아보며 새로운 문화와 교육방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주변 여러 나라의 중간에 위치해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며, 환경공학이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 준비

국제교류원 담당자분께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전체 학년 성적, 여권 사본 등등을 제출했었습니다.

비자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이 완화되면서 예나로 각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며 비자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비자를 만들지 않고 독일에 입국하여 안멜둥(주거지 등록)을 다 끝마치고 비자 예약신청을 하였으나 날짜가 2023년 3월 이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우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 취소 표를 잡거나 누군가가 비자를 만들러 간다고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취소 표를 잡았는데 제 친구는 잡지 못해 저랑 같이 가 상황을 설명 후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직원 재량이며,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또 데려가 잘 풀린 케이스이므로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항공권 구입

교환학생이 확정된 후 바로 구입하였는데 kises에서 학생할인을 받아 구매해 왕복 90만원 정도에 폴란드 경유로 구입하였습니다. 또 kises에서 관리하는 ISIC 국제 학생증의 경우 독일에 도착 후 토스카라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수강신청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설 과목 등을 살펴본 후 서류를 작성해 양쪽교 담당자분께 확인받고 제출하면 신청이 되고 정정 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시험신청

을 별개이므로 시험 신청 기간 내에 꼭 시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신청을 하지 못한 시험이 1개 있었는데 이후에 담당 오피스를 찾아가 시험을 등록하였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응용과학대학교는 총 5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기는 금오공대와 비슷합니다. 독일은 일요일에는 마트가 다 안 열고 성탄절이나 기타 기념일에도 안 여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미리 물품들을 구비 해둬야 합니다. 튀링겐주 안에 위치한 예나는 소도시여서 걸어서 웬만한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토스카가 있으면 튀링겐 지역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기차로 15분 거리에 바이마르가 있고 30분거리에 에어푸르트가 위치해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이용료 한 번을 제출하면 됩니다. 에어푸르트에는 이케아도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갈 때 좋았습니다. 토스카는 충전을 해 맨자(학생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나 도서관에서 프린트, 세탁기, 건조기를 이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또 독일 도서관은 도난 등을 이유로 도서관 안까지 가방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서 짐을 맡길 때 토스카로 락커 키를 빌려줍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독일로 교환학생을 온 다른 나라 학생들도 거의 환경공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환학생들에게 개설된 환경공학 수업도 많았는데 교환학생만 듣는 수업이 아닌 독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Water Purification, Eco Balancing, Environmental Chemistry, Waste treatment and resource efficiency 총 네 과목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Water Purification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하며 그 실험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2일 정도에 끝나서 가장 빨리 끝난 수업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발표가 한 번 있는데 발표라기 보다는 보고서 내용 중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피드백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Eco Balancing

컴퓨터실에서 OPENLC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업하며 EAH 모듈 사이트(강의지원시스템 느낌)에 해야 할 것을 올려주신 후 각자 답을 찾아보는 수업으로 12월에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Environmental Chemistry

실험, 발표, 온라인 시험 등으로 이루어진 과목으로 온라인 시험은 학기 중 5번을 보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픈북이 가능합니다. 한 9문제 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실험은 토양실험을 했는데 예나에 흙을 직접 퍼서 실험하였고, 이후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와 실험은 2명씩 짝을 지어 진행합니다.

Waste treatment and Resource efficiency

waste와 resource 교수님이 두 분으로 각자 다른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한 과목 안에 두 과목이 있으며 시험만 한 시간 내에 같이 봅니다.

수강과목에 관해서는 교양과목들을 추천드립니다. 전공과목은 본교의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독일 도착 후 주거지 등록

기숙사가 확정되면 주거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 계약하기, 안멜등 하러 시청가기, 모두 약속을 잡고 가야 합니다. 기숙사 계약은 기숙사가 확정된 후 메일이 와 약속을 잡아 줄 것이고, 안멜등은 직접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숙사 신청

기숙사는 학교와 가까운 Carl-zeiss promenade 8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기숙사 신청을 잘못해 확인 메일을 클릭하지 못해 다시 신청을 하여 기숙사 신청이 늦어져 지망에도 없던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하는 기숙사였습니다. 저는 Spitzweidenweg 11에 살았는데, WG라는 기숙사의 형태로 각자의 방이 있고,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한 달에 에너지세 포함 300유로가 들고 방이 정말 넓습니다. 제 룸메는 한국인 1명, 중국인 3명으로 다 여자였지만 제 친구는 혼성에 6명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학교까지 트램을 탄 후 버스로 갈아타야 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센터와 가까워서 편의가 좋았습니다. 이쪽 동네의 경우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교와 가까워 독일어과 한국 학생들을 몇몇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나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월세, 에너지비가 적다고 합니다. 독일은 마트 물가가 한국보다 싸지만, 외식 값은 비슷하거나 비쌉니다.

독일 계좌

독일에서 온라인계좌로 저는 Vivid를 개설하였는데 비자를 만들 때 생활비 증명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또 실물 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독일은 삼성페이 대신 애플페이가 가능해 비비드 카드를 연동시켜 쉽게 결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숙사 퇴실

기숙사 퇴실할 때 방 상태가 깨끗한지, 복도가 있다면 복도, 부엌,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를 집 관리자가 확인한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제가 살았던 기숙사의 경우 청소 점검 시간을 3시 반으로 잡고 집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저녁 11시로 잡았었는데, 3시 반 점검이 끝나고 방의 문을 잠근 후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전 친구 집에 머물다 갔지만 그럴 수 없었다면 짐도 많은 상태에서 부엌이나 복도에서만 8시간 가까이 머물다 떠나야 했습니다.

토스카 돈 빼기

떠나기 전 토스카에 충전되어있는 돈을 빼야할 때는 맨자에 있는 충전하는 기계를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은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넣어질 계좌가 필요한데 꼭 'Girocard'라는 독일 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돈을 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면 충전된 돈을 꼭 다 쓰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대학에서는 교환학생들을 위해 2주 동안의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0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 9월 18일 정도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동안 머물 숙소를 미리미리 잡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적인 활동이지만 꼭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주 동안 독일어를 레벨별로 배울 수 있고, 오후에는 때때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때 만난 각국의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고, 주변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학식당으로 Mensa라는 식당이 있는데 학생증에 돈을 충전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식단을 골라서 계산대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아리는 따로 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멘토 팁

독일에 도착하기 전 배정해준 현지 멘토가 있었지만 연락이 잘 안 되었고,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나에 도착하면 바로 멘토가 같이 안멜둥, 비자 등등을 같이 해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끊기고 그 연락을 기다리다 보니 타이밍을 놓쳐 다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알아서 서류들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멘토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담당자인 로버트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Korean Stammtisch

독일 예나에는 한국 스타미쉬라는 모임이 존재합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친구도 사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독일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책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만 접한 부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고 친절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독일이라는 나라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한국보다 낮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대학에 오고 싶은 사람이 대학에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수업에 열정적이고,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수님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독일인뿐만 아닌 다양한 인종을 만났는데 모두 2개 국어는 기본이고, 3개 국어, 4개 국어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언어든 전공 공부든 전보다 더 몇 배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기숙사 앞 트램 길



EAH JENA Haus 1 건물

Spitzweidenweg 11 Haus 2 기숙사 방



Environmental Chemistry 수업 시간